

고사와 불

불에 타야 피는 꽃

시드니 시내를 벗어나 서쪽으로 약 100 km를 달려가면 호주가 자랑하는 국립공원 「블루마운틴(Blue Mountain)」이 나온다.

이 산을 뒤덮은 「유칼립투스」 나무에서는 특별한 수액이 방출되는데 수액이 따가운 태양빛을 받아 증발하면 온 산이 푸른빛으로 반사된다.

호주 사람들은 푸르게 물든 그 모습 그대로 이 산을 블루마운틴이라 부르고 세상 사람들은 호주의 자연을 감상하는 대표적 코스로서 아름다운 산, 블루마운틴을 찾는다.

불이 나야만 꽃이 피고 번식하는 나무가 있다.

광대한 서부의 사막지대로 이어지는 호주의 그랜드캐년, 블루마운틴 등에서 자생하는 별난 세 가지 나무 ▶그래스트리, ▶뱅크시아, ▶유칼립투스가 그것이다.

「그래스트리」는 풀(Grass)과 나무(Tree)의 합성어로서 줄기는 커다란 고목처럼 잎은 마치 억새풀이 두 세 가닥으로 갈라져 늘어진 것처럼 보이는 장수(長壽) 초목이다. 불이 나면 다른 식물들은 죽기 십상(十常)이지만 내화성 강한 그래스트리의 줄기는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휘발성의 잎만 타게 되는데 이때 생성된 다량의 에틸렌가스가 그래스트리의 성장을 촉진시켜 꽃이 피게 된다고 한다.

최근 안면도(安眠島) 꽃 축제에서 큰 인기를 누렸던 이 나무는 서울 근교 어느 식물원 온실에서도 크게 자라고 있다.

「뱅크시아(banksia tree)」는 꽃의 모양과 색상이 다양하고 열매가 독특하여 원예품종으로 많이 보급되고 있다.

불길이 가지를 태울 때 마치 상수리처럼 씨를 싸

고 있던 캡슐이 터져 땅에 떨어지게 되면 불 때문에 비옥해진 토양에서 최상의 생육 조건으로 다시 태어난다. 생장여건이 나쁜 호주의 황무지에서 뱅크시아는 이처럼 지혜로운 번식을 한다.

코알라의 주식(主食)인 유칼립투스(Eucalyptus)는 불이 잘 붙는다.

알코올과 오일성분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이 나무 주위에 사소한 점화원만 있어도 이내 화재로 변한다. 호주의 뜨거운 태양열이나 나무들의 마찰열이 산불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다.

유칼립투스는 불에 타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재생력이 뛰어나 다음해가 되면 까맣게 탄 껍질을 벗고 새로운 줄기를 키워낸다.

불에 타서 죽지 않는 나무가 있을까 하겠으나 사실은 나무 주위의 알코올 성분이 아주 빨리 타므로 줄기의 심부까지 고열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회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유칼립투스 나무에 얽힌 두 가지 흥밋거리가 있다.

호주의 명물 코알라가 하루에 18시간이나 잠을 자는 것은 게으르거나 졸려서가 아니라 유칼립투스 나뭇잎의 20퍼센트나 되는 알코올 성분에 취해 있는 것이고 시드니의 명물 오페라하우스가 유명해진 것은 조각낸 오펜지 껍질에서 착안하였다는 아름다운 외형과 더불어 유칼립투스로 치장된 내부의 울림이 최고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혹여 호주의 산야에서 불이 났다는 뉴스를 들으면 이는 숲이 새롭게 자라는 자연스런 과정, 그래서 “아! 새 생명이 태어나는구나.” 하며 위안을 삼아도 좋을 것 같다.

〈김동일/소방기술사·(주)한국소방 전문〉